

# ['고난의 역사현장' 일제전적지를 가다(52)]수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1)

목포 김백운씨, 살려달라 절규 생지옥이 따로 없었지

입력 : 2007. 01.11. 00:00:00



▲당시 생존자인 김백운씨(오른쪽)가 목포에서 취재팀에게 선박침몰로 1백 명이상 수장당한 참상을 증언하고 있다.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개 끌러가듯 끌러가...반 이상은 수장**

**형제·부자가 징용돼 유명 달리하기도"**

태평양전쟁 말기에 강제징용당한 사람들이 귀향도중 선박침몰로 1백 명 이상 수장당한 참사는 일제의 전쟁야욕 앞에 인간의 존엄성이 철저히 무시된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동안 거의 묻혀져 왔다가 최근예야 생존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조금씩 그 진상이 밝혀지고 있다. 본보는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생존자들에 대한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62년 전 참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사건의 진상과 강제징용 및 제주에서의 일본군 군사시설 구축과정 등을 조명해본다.

1백 명 이상이 몰살당한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김백운씨. 이제 80에 이른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몸서리쳤다. 당시 "개 끌러가듯이 끌러갔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 그리곤 반 이상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옥매산광산에서의 강제징용과 제주에서의 중노동, 구사일생으로 귀환하기까지 김씨가 밝히는 일련의 과정은 전쟁의 비극과 식민지 조국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

김씨를 비롯한 전남 해남군 황산면 소재 옥매산(玉埋山)광산의 광부들이 제주로 강제징용된 것은 1945년 3월 하순 무렵이다. 당시 만 17세의 김씨는 그해 1월부터 2개월 정도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제주로 강제 징용된다.

"3월 하순쯤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날 일본인이 운영하던 옥매산광산 측에서 덮어놓고 광산 노동자 전부(3백~4백명 정도로 기억)를 광장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일본군 헌병과 경찰이 지키는 가운데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일본제국을 위해 봉사 등을 하라는 연설을 하고는 배를 타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산노동자들은 배 3척에 나눠 타고 제주로 향한다. 당시 일제는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가족들은 회사 측에서 옷가지 등을 보내준다고 해서 그제서야 제주도로 간 것을 알았다는 것.

강제징용 광부들을 태운 선박은 당시 미군기들이 해상에 있는 배들을 자주 폭격하는 바람에 오후 5시~6시쯤 출항, 밤에 추자도에 잠깐 정박한다. 이어 야간항해 끝에 다음날 새벽에 제주시 성내포구(제주항)에 도착 한 후 창고 같은데서 가마니를 깔고 하룻밤을 잔 뒤 배를 타고 모슬포로 갔다.

모슬포에 도착해서 그들이 한 일은 포탄을 나르는 것. 김씨에 따르면 모슬포 항구의 배에서 포탄을 어깨에 메고 걸어서 소나무가 있는 조그만 야산 같은 곳에 쌓아 놨다. 포탄은 105mm나 그 이하의 것으로 기억했다. 오른쪽에는 해군병사(兵舍)가 있고 해군병사와 바다가 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2~3일 정도 포탄을 운반하고 나니까 광부들은 분산배치 됐습니다. 나와 나의 형님(김백천), 서씨라는 분 세 사람은 별도로 차출돼서 군부대로 배속됐어요. 그 이유는 철공기술이 있다는 이유로 차출당한 것이죠."

세 사람은 그 때부터 일제 패망 때 까지 '깍쇠'를 만들었다.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일본군들이 말발굽 등 쇠를 구해오고, 대장간 시설 등을 만들고 숯 등을 조달했습니다. 나는 망치질을 하고 형님과 서씨는 기술자니까 깍쇠를 만들었습니다."

숙소는 물이 흐르는 비탈길에 구덩이를 파고 돌로 담을 쌓고, 그 위에 천막을 치고 풀로 위장한 곳에서 살면서 깍쇠를 만들었다는 것.

"당시 일본군은 미군이 공격을 하게 되면 2~3일 정도는 초토화 시키고 다음에 탱크와 보병부대가 진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 굴속에 숨었다가 돌격하면 이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군 졸병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틀렸다, 전쟁에서 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군기가 지나간 다음에야 고사포가 터지더라는 것. 또 광복 직전에는 미군이 사이판을 치고 오키나와를 치고 그 다음 목표가 제주도라는 말이 들렸다고 김씨는 말했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 다 죽겠다는 불안감에 섬을 탈출할 생각을 하고 암암리에 사람과 배를 알아보던 찰나에 해방소식을 들었다.

운명의 배가 출항한 것은 1945년 8월 ▲새신오름에 구축된 갯도진지 내부.  
21~22일 무렵. 배가 없는 바람에 제주시 성내포구에서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만 했다.

배가 출발한 것은 새벽 1시쯤. 배는 35톤 정도로 옥매산광산의 책임자가 주선했다. 배에는 강제징용된 옥매산광산의 광부 2백50명 정도가 탔다.

배에 화재가 난 것은 아침 8시쯤. 김씨가 배멀미를 하는데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

"사방은 수평선 밖에 안보였어요. 선박 내부는 전부 숯덩이로 변했죠. 당시 전부 바다로 뛰어 들었는데 수영하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못하면 죽고... 한마디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떠 있기를 7~8시간 정도 지났을까.

저만큼 일본군 소형 초계정이 나타났다. 목포에서 진해 가는 도중에 배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 다가와서는 수영을 해서 배에 오르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김씨와 형, 일본인 등 세 사람이 먼저 배에 구출됐다.

"당시 일본군들은 이 중에 내지인(內地人·일본인)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있다고 하니까 안으로 데려가서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살아있는지 망원경으로 살펴보고 찾는 과정에서 광부들을 구조했습니다. 일본 초계정은 배에 탔던 일본인 5명 가운데 3명은 살고 2명은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 구출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1백m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7~8명의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는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그 곳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부 죽었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1백17명. 일본 초계정은 그날 해질 무렵 청산도에 생존자들을 내려놓고 진해로 떠났다.

그 때 청산도 청년들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옷과 먹을 것을 주고 배(뚝배·무동

력선)를 주선해줘서 다음날 오후 1시쯤에 해남으로 귀향했다.

배에 화재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김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당시 기관은 열 받은 다음에 발동이 걸리는데 그 상황이 반복되니까 옆에 있던 휘발유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난 것이죠. 뱃놈이 일본군인한테 휘발유를 사서 숨겨 놓았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 끄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에 대해 다른 생존자들은 당시 "일본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는 증언을 한다.

"지금도 옥매산광산 주변 마을에는 한날에 제삿날이 많습니다. 형제나 부자가 같이 갔다가 다 죽거나 혼자만 살아남은 경우도 있어요."



▲갱도내부에서 발견된 꺾쇠.

김씨는 이제까지 60여 년 전 참상을 가슴속에 묻어왔다며 당국에서도 당시 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 **[미니박스]가마·새신오름 일대 배치된듯**

김씨는 어디에 배치돼서 노역에 시달렸을까.

김씨에 따르면 포탄을 나른 곳에서 꺾쇠 만드는 곳까지는 40~50리 정도 걸어서 간 것으로 기억했다. 부대는 '3'자가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꺾쇠를 만드는 곳에서 당시 머리가 허연 일본군 대장이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 일본군 대장이 나오면 책임자인 중위가 꺾쇠를 만들었다고 보고했다는 것.

이로 볼 때 김씨는 제111사단 예하 243·244연대 주둔지인 가마오름·새신오름·굽은오름·이계오름 일대서 꺾쇠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일대 주민인 김원욱씨(한경면 산양리)의 "머리가 허연 일본군 대장이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는 증언과도 일치해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이곳에는 또 완성도 높은 대규모 갱도진지 등이 만들어져 있다.

/특별취재팀

※한라일보([www.hallailbo.co.kr](http://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